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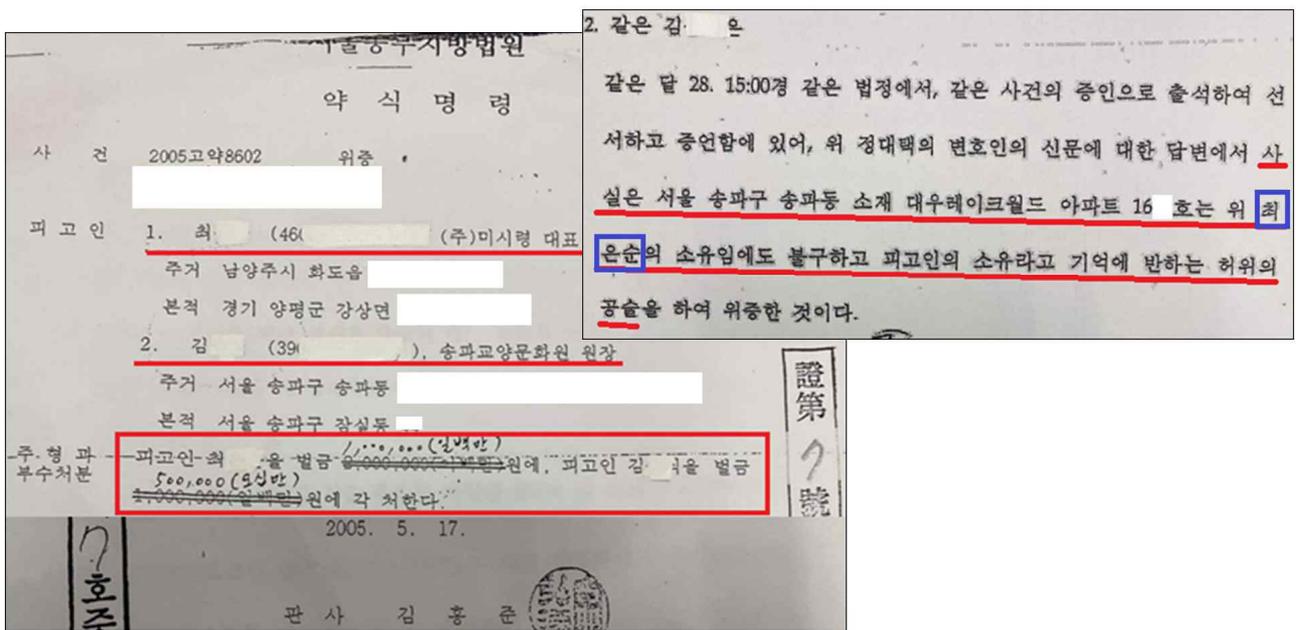
(문의) 02.784.9862

최은순,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 차명보유 의혹 현안대응TF, 최은순 차명의혹 부동산 관련 법원 약식명령서·등기부등본 공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김충식(최은순의 동업자)이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잠실대우레이크월드 16**호 아파트를 확인했다. 이는 잠실 석촌호수 앞에 위치한 60평대 고급아파트로,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현재 22억 원에 나와 있다.

현안대응TF가 확보한 최은순과 김충식의 위증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 명령(2005.5.17.)에 따르면, “사실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대우레이크월드아파트 16**호는 위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 했으며 위증죄로 김충식에게 벌금을 명령했다.

최은순·김충식 위증죄에 대한 약식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년 5월 17일)



현안대응TF가 확인한 결과, 최은순과 김충식은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2005년 5월 2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이내 태도를 바꾸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6월 23일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최은순·김충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경과(2005고정1061 사건)

사건번호	2005고정1061		
피고인명	최은순	재판부	형사3단독 (전화:2204-2306)
접수일	2005.05.23	중국결과	2005.06.22 정식재판청구취하
형제번호	2004형제47847		
상소세기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상세보기

일자	내용
2005.06.14	피고인 최은순 탄원서(진정서,반성문등) 제출
2005.06.23	피고인 김충식 (각종)취하서(포기서포함) 제출
2005.06.23	피고인 최은순 (각종)취하서(포기서포함) 제출
2005.06.23	변호인 박동주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잠실대우레이크월드 16**호 등기부등본에는, 2002년 최은순의 오빠인 최만중이 분양을 받은 이 아파트를 2005년에 최은순의 동업자인 김충식이 매수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김충식 스스로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최은순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고 김충식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된 것이다.

잠실대우레이크월드 16호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2년12월10일 제134815호		소유자 주식회사대우건설 110111-2137895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2	소유권이전	2002년12월26일 제138945호	2002년3월13일 매매	소유자 최만중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3	소유권이전	2005년3월29일 제25137호	2005년3월14일 매매	소유자 김충식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최은순은 2016년 8월 18일, 김충식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최은순이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2개 필지도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해당 아파트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잠실대우레이크월드 16호 등기부등본 (최은순, 가등기권 설정)**

6	사기부소유권이전등 구권기등기	2016년8월18일 제54785호	2016년8월18일 매매예약 (사기 2021년8월18일)	가등기권자 최은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초로길
7	6번가등기말소	2017년6월12일 제71051호	2017년2월16일 해제	

한편 해당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김충식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이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김병기 단장은, “심지어 최은순이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때는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단장은, “최은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끝.